

“인류는 왜 모여 살기 시작했을까?” GIST, 제63회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 개최

-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장을 역임한 도시·공공디자인 전문가 김영섭 건축가 초청 강연
- 선사시대 유적에서 초기 도시문명까지, 인간 공동체 형성 과정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 GIST아카데미가 6월 29일(월) 오룡관에서 김영섭 건축가(김영섭 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초청해 제63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6월 29일(월) 오룡관에서 제63회 GIST 아카데미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도시와 건축의 기원(起源)으로 읽는 문명의 시작’을 주제로, 도시와 건축의 기원을 통해 인간과 공동체, 공간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 문명의 발전 과정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섭 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이자 건축가인 김영섭 대표가 연사로 초청됐다.

김 대표는 1982년 건축문화설계연구소를 개설한 이후 건축 설계와 건축문화 연구를 이어오며 건축과 도시 문화, 공공디자인을 아우르는 활동을 펼쳐 왔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와 교수, 건축디자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으며,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래너와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도시·공공디자인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바탕으로 김수근건축상과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건축가로서의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강연에서는 튀르키예의 선사시대 유적인 괴베클리 테페와 카라한 테페를 사례로, 인류가 농경사회 이전부터 공동체를 이루고 의례 공간을 조성해 온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이들 유적이 농경사회 이전부터 인간 공동체가 의례와 신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공간이 단순히 사람이 머무는 곳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담는 장소로 기능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주와 농경의 시작이 인간의 생활 방식과 공간문화에 가져온 변화를 설명하며, **농경의 발달이 인간을 한곳에 정착하게 하고 마을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주거 문화와 공간구조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김영섭 대표가 GIST아카데미가 6월 조찬포럼에서 '도시와 건축의 기원(起源)으로 읽는 문명의 시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초기 도시 문명 사례를 소개하며 **·자연환경 ·농경 기반 ·공동체 질서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도시는 단순한 주거지의 확대가 아니라 생산과 종교·의례, 교류 기능이 결합된

복합적 공간이었으며, 건축은 건물의 형태나 기술에 한정하기보다 인간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공간에 담긴 가치와 의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와 건축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일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질서를 구축해 온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인류의 정주와 농경이 도시의 탄생과 문명 형성으로 이어진 과정을 살펴보고, 공간과 건축이 공동체의 신앙과 문화, 사회적 질서를 담아 발전해 왔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GIST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GIST아카데미**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5월·6월·9월·10월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 기업인과 동문들을 위한 조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